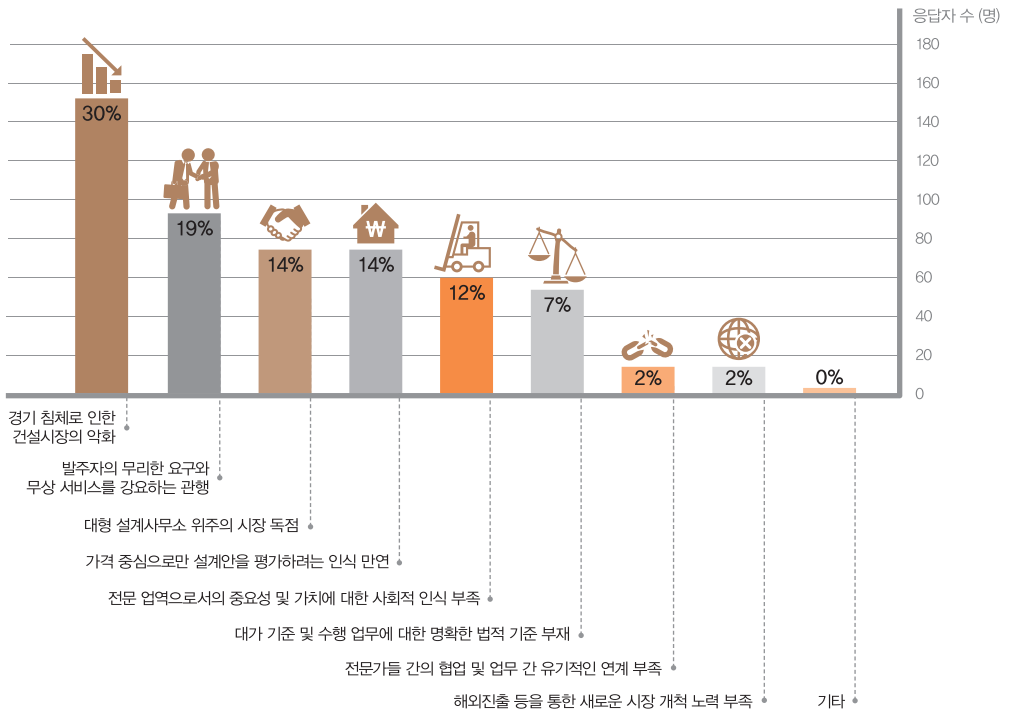


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의 현안 인식과 과제

오성훈 연구위원
("건축설계산업의 현안과
제도개선 방향", 「auri brief」 81호)

건축설계사무소 규모별로 대규모 업체(100명 이상) 종사자 25%, 중규모 업체(10명 이상~100명 미만) 종사자 37%, 소규모 업체(10명 미만) 종사자 33%, 기타(무직 및 프리랜서) 5%로 구성된 256명의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2013년 9월 조사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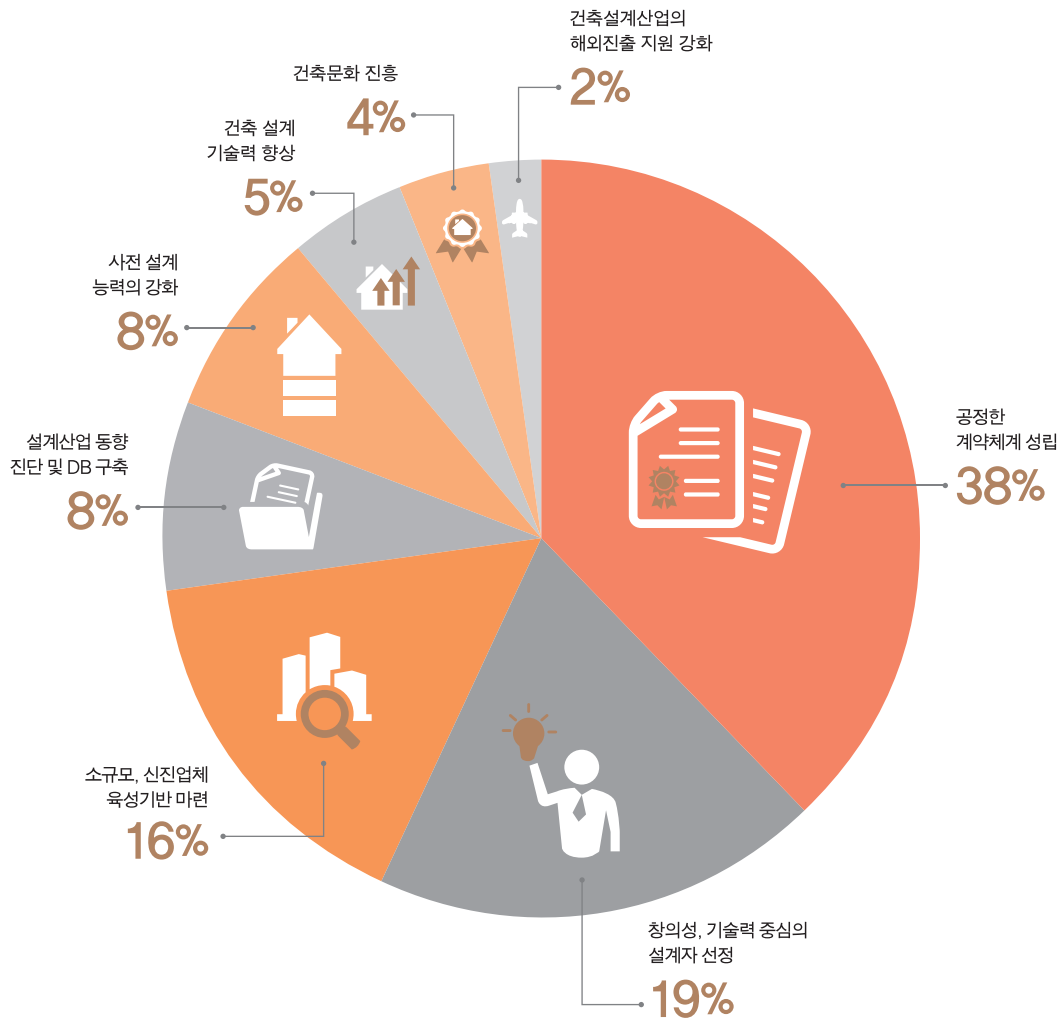
Q1. 건축설계사무소는 왜 어려운가?



A.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시장의 악화가 주된 요인

응답자의 약 30%가 '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시장의 악화'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하였다. 이어서 '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와 무상 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'(19%), '대형 설계사무소 위주의 시장 독점'과 '가격 중심으로만 설계안을 평가하려는 인식 만연'(각 14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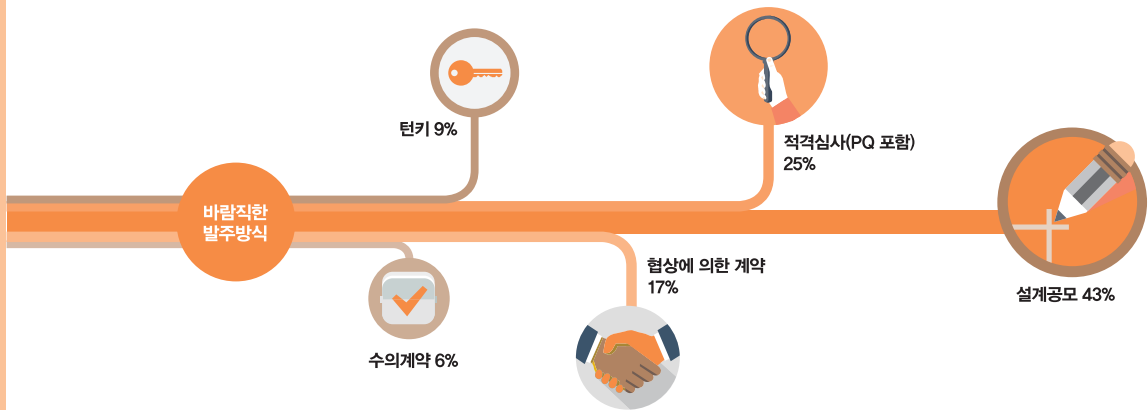
Q2.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는?



A. 공정한 계약 체계의 성립이 가장 시급

응답자의 약 38%가 '공정한 계약체계 성립'을 중요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, '창의성,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'이 19%, '소규모, 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'이 16%로 그 뒤를 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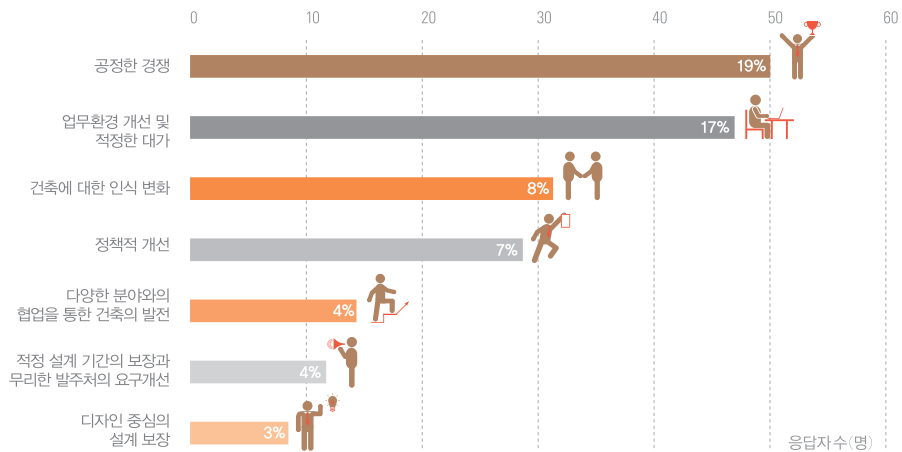
Q3. 가장 바람직한 발주방식은?



A. '설계공모' '적격심사' '협상에 의한 계약' 순으로 집계

응답자의 약 43%가 '설계공모'를 가장 바람직한 발주방식으로 선정하였다. 이는 설계안 중심의 경쟁을 원하는 분위기로 파악된다. 이어서 '적격심사(PQ포함)' 25%, '협상에 의한 계약' 17%, '턴키' 9%, '수의계약' 6%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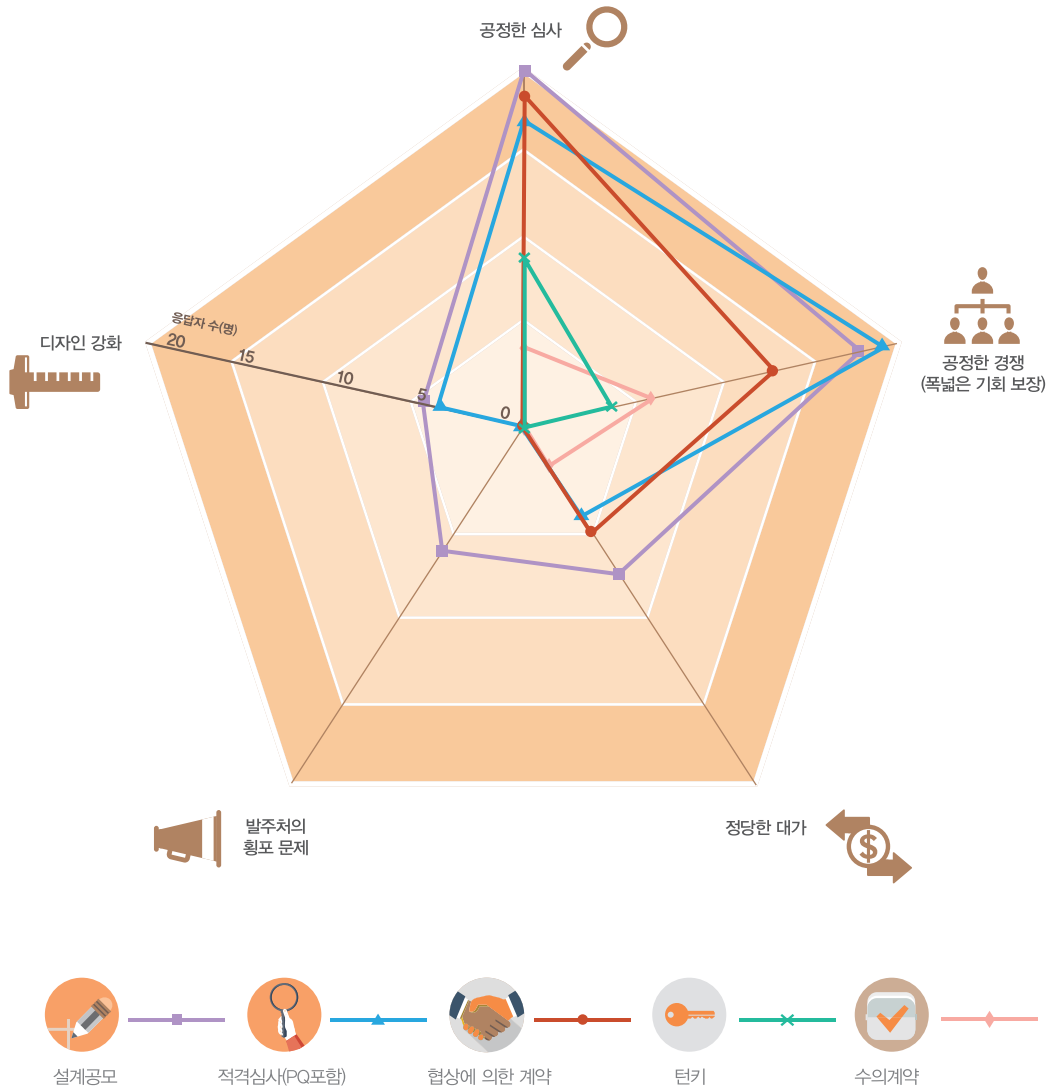
Q4. 건축설계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언



A. 공정한 경쟁, 업무환경 개선 등 필요

건축설계산업 종사자의 약 19%가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'공정한 경쟁 보장(소규모 및 신진업체의 참여기회 확대)'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. 또 설계실무자의 약 17%는 '업무환경 개선 및 적절한 대가 보상'을, 약 8%는 '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'를 건축설계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들었다.

Q5. 발주방식별 개선점은?



A. 폭넓은 기회보장 및 차별 관행 폐지 필요

발주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공정한 심사와 공정한 경쟁(폭넓은 기회보장과 사무소 규모에 따른 차별 관행 폐지)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.